

한 눈으로 보는 경제		9일
코스피지수	2019.55	▲ +10.42
코스닥지수	625.77	▼ -5.38
환율(원·달러)	1193.00	▼ -1.50

비즈 프리즘 | “3000만 해외여행족 잡아라” 시중은행 특화상품 경쟁

마일리지 팍! 6% 고금리도 팍팍!

하나·기업, 마일리지 대폭 적립
우리 '여행적금2' 금리 최대 6%

시중은행들이 해외 여행객을 겨냥한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동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1765만434명으로 전년(1681만1402명) 대비 5%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추석 연휴를 비롯해 10월 개천절·한글날 등의 징검다리 연휴, 연말 등 해외여행 기회가 많아 2018년 해외출국 2869만5983명을 넘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여행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은행마다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고 있다. 먼저 마일리지 특화 상품이 있다. KEB하나은행이 4일 출시한 '마이트립 적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자가 '하나 트립 카드'를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 이상 사용하면 만기에 연 1%의 기본 금리에 더해 우대금리 대신 아시아나항공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월 30만~50만 원을 납입하는 마일리지 I형의 경우 2000마일리지를, 월 50만~100만 원을 납입하는 마일리지 II형은 3000마일리지를 준다. 카드사가 매월 사용액

의 일정 비율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은행에서 적립이자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K기업은행은 3일 국적 저비용항공사(FCC·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통합 포인트인 유니마일을 적립하는 '원어어(유니마일) 카드'를 출시했다. 전월 이용액이 30만 원 이상 시 국내 가맹점 이용액 1500원 당 10마일, 통신요금 자동이체 및 해외 가맹점 결제 시 1500원 당 20마일, 저비용 항공사 6개사에서 항공권 구매 시 1500원 당 30마일이 적립된다. 또 국내의 공항라운지 무

료, 인천공항 무료 다이닝 서비스, 수하물 우대 서비스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고금리 상품도 인기다. 우리은행은 5일 '우리 여행적금2'를 선보였다.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가입기간 1년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 최대 연 4.2%를 더해 최고 연 6%다. 우대금리는 우리은행 첫 거래,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0.7%, 우리카드 이용액과 공과금 카드납부 등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5%를 제공한다. 또 항공권 할인, 면세점·호텔 제휴, 데이터로밍 등 여행 관련 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차그룹,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 신사업 나서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사업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9일 자체 개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를 북미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해 실증사업을 시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발전사업모델 발굴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중 등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OCI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 실증 및 분산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다. 송·배전, 가정 및 산업용 등에서 전력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자체 개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를 한국 공주시와 미국 텍사스주의 OCI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해 함께 실증 분석과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핀란드의 바르질라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현대제철 사업장에 1MWh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실시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3단계 ↑

관광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0개 평가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2017년 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것으로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다. 분야별로는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이 제일 많이 상승했고, 인프라 분야, 환경 조성 분야 순위도 올랐다. 반면 자연과 문화자원 분야는 2017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국가순위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1~3위를 기록했고 이어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순이었다. 김재범 기자

밀레니엄 힐튼, 부수 총지배인 부임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서울의 신임 총지배인으로 필릭스 부쉬(42·사진)가 부임했다. 필릭스 부쉬 신임 총지배인은 독일 출신으로 힐튼에서 16년을 근무했다. 독일, 스코틀랜드, 영국, 호주 등의 여러 힐튼 브랜드에서 파이낸스, 식음료, 영업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일본 힐튼 나고야에서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총지배인으로 근무했다. 김재범 기자

롯데카드, 라이킷 체크카드 2종 출시

롯데카드가 라이킷(LIKIT) 체크카드 2종을 출시했다. '라이킷 온 체크카드'는 모든 가맹점을 두루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카드다. 전달 이용액이 30만 원 이상 시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0.2%를 캐시백 해주고 주말 및 공휴일에 0.2%를 추가로 캐시백 해준다. '라이킷 온 체크카드'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카드다. 전달 이용액이 30만 원 이상 시 온라인 이용 건은 3%, 온라인몰 이용 건은 5% 캐시백 해준다. 정정욱 기자

※ 교육·퍼즐은 9면에 옮겨 실었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식 은행' 운영

귀중품 보관 서비스·환전 이벤트도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이동점포, 귀중품 보관, 환전 이벤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먼저 귀성객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형 이동식 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11일과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 뱅버드를 운영한다. NH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 NH윙즈를,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이동점포 위버스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자동화기기 및 위생 송수신 장비 등을 갖추어 신권 교환, 현금 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석 연휴 기간 집을 비우는 고객들을 위한 귀중품 보관 서비스도 있다. NH농협은



NH농협은행 이동점포 'NH윙즈'

행은 18일까지 대여금고가 있는 전국 194개 영업점에서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서비스를 진행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겨냥한 환전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10월 31일까지 '늦캄스 환전 이벤트'를 통해 외국 통화를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면 추첨을 통해 하나머니와 신라온라인면세점 10만 원권 적립쿠폰을 증정한다. KB국민은행은 30일까지 'KB 포스트 외화 배달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환전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추석 선물로 주방용품 어떠세요" 현대리바트가 운영하는 미국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가 15일까지 '추석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 프라이팬, 식기세트 등 주방 상품을 10~50% 할인 판매한다. 추석 선물에 맞춰 식재료 준비를 도와주는 조리도구도 20% 할인해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현대리바트

트위터와 함께 쑥쑥 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특별기고
최향숙
트위터코리아 이사

최근 트위터에서 올해 상반기 트윗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게임 관련 트윗량 1위는 일본, 2위는 미국,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세계 3위의 게임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그랑블루 판타지, 몬스터 스트라이크, 앙상블 스타즈 등 인기 게임에 대한 트윗이 활발히 생성되고 있다. 게임 관련 대화가 활발한 두 번째 국가는 368억 달러(약 44조 6936억)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게임 강국 '미국'이다. 올해 처음 열린 '2019 포트나이트 월드컵'에 관한 트윗이 가장 많았으며, 콜 오브 듀티, 젤다의 전설, 오버워치, 킹덤하츠에 관한 트

윗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 해 5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영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게임 관련 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국가에 올랐다. 이는 국가 별 트위터 유저수를 고려했을 때 매우 인상 깊은 부분이다. 일본은 이미 월 사용자수가 5천만 명에 육박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트위터 유저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트위터 유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게임 관련 트윗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국내 게이머와 팬들이 다른 나라보다 트위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올 상반기 글로벌 게임 트윗 증가의 중심에는 e스포츠의 인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e스포츠의 인기 속에 3000만 달러(약355억)라는 역대급 상금을 내세운 '2019 포트나이트 월드컵'과

글로벌 격투 게임 대회인 '에볼루션 챔피언십 시리즈(EVO2019)'와 관련된 대화가 활발히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최근 e스포츠 관련 트윗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스포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트위터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명한 e스포츠 선수를 트위터 스타로 만들기도 했다. 실제 포트나이트 월드컵 솔로 매치에서 우승하며 300만 달러(약 35억)의 상금을 거머쥔 미국의 카일 저스도르프 선수에 대한 관심을 눈여겨 볼만하다. 3만 2000명이던 카일 선수 트위터 팔로워가 솔로 매치 우승 후 23만4000명으로 급증했기 때문. 카일 선수 외에도 듀오 매치 결승전에서 통쾌한 역전극을 보여준 'Nyhrox'와 'Aqua' 선수에 대한 트윗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종료된 EVO 2019에서도 트위터 스

타가 탄생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철권 7' 종목에서 파키스탄 출신 게이머 '아슬란 애쉬'가 우승을 차지하며 트위터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올 상반기 전 세계 게임 팬들은 트위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과 선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게임 관련 트윗량은 지난해 기록인 10억 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 게임 톱5에 오르며 한국 게임의 저력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된다.

최향숙 이사
▲트위터코리아 전략광고 및 사업개발 담당 ▲삼성전자(2008~2015)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유럽 PM(2006~2008) ▲애스톤대(영국) e비즈니스 석사